

| 풍경으로의 여행 |

남녘 끝 섬마을로 떠나는 봄 마중, 거제도

글·사진 정철훈 여행작가

서울예전 사진과를 졸업했다.

사진이 좋아 여행을 시작했고 여행이 좋아 여행작가로 살아간다.

- 2017~2018년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위원
- 2013~2014년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역사기록팀(오아시스로, 해양로 탐험)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2005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봄이다. 입춘과 우수가 지났으니 절기상으로는 분명 봄이다. 한데 동장군의 심통은 여전하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한기가 느껴질 정도니 말이다. 그래서 남녘 끝, 거제도로 간다. 봄을 만나고 또 그 속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서다. 지심도에서 동백꽃을 만나고, 북병산에 올라 황금빛으로 곱게 물든 남해를 품어볼 생각이다.

겨울과 봄을 잇는 처연한 붉은 빛, 지심도

거제 장승포 선착장을 떠난 배는 20여 분만에 지심도에 닿는다. 육지와 가까워 더 애뜻한 섬, 지심도는 예로부터 동백나무가 많아 동백섬이라 불렸다. 실제로 지심도 숲의 70%를 동백나무가 차지한다. 동백꽃이 개화하는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지심도는 피고 지는 동백꽃으로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든다. 지심도는 아름다운 풍광만큼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말, 대동아전쟁에 혈안이 된 일본이 해안방어를 위해 섬 곳곳에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포진지와 탄약고, 서치라이트 보관소, 일본기 게양대, 활주로 등이 그 상처



지심도 동백 숲 산책로

의 흔적들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섬에서 아픈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어찌겠는가? 그 아픔도 우리가 보듬어야 할 우리의 역사인 것을.

동백 숲은 지심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활주로를 지나면 모습을 드러낸다. 동백터널로 들어서면 더 이상 하늘도 바다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뻑뻑이 들어선 동백나무는 햇빛이 스미는 것조차 쉬이 허락하지 않는다. 먹지 위에 뿌려진 흰 물감처럼, 길 위에 듽성듬성 내려앉은 빛의 조각들은 동백꽃과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백 숲을 벗어나 갈림길에 다다르면 이제 섬의 끝도 멀지 않았다. 우측으로 방향을



지심도 동백꽃



탄약고



포진지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에 있는 이국적인 풍차



바람의 언덕 동백 숲 가는 길

잡아 300m 정도만 가면 섬의 북쪽 끝인 망루가 나오고, 망루를 지나 짧은 목재 계단을 내려 서면 길이 끝난다. 길의 끝에서 만난 광활한 바다는 여행자의 아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시리도록 푸르다.

거제가 품은 천혜의 비경, 바람의 언덕·신선대

바다를 향해 불거진 지형을 꽃이라 부른다. 포항의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 제주의 섬지코지(곶)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에도 예쁜 곶이 있다. 거제 남동쪽 해안에 거북이 목처럼 길게 뻗은 갈곶이 주인공이다. 거제의 대표 여행지인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가 이곳에 있다. 바람의 언덕은 갈곶 도장포마을 북쪽 해안에 봉긋 솟았다. 이곳을 왜 바람의 언덕이라 부르는지는 언덕 정수리에 올라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하지만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만큼 두 눈 가득 밀려오는 옥빛 바다의 그림 같은 풍경이야 말로 바람의 언덕이 여





전망대에서 본 신선대

행자에게 건네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국적인 모습의 풍차와 아담한 동백 숲도 바람의 언덕에선 빼놓을 수 없는 특급 조연들이다.

갈곳 북쪽에 바람의 언덕이 있다면 신선대는 그 반대편에 있다. 거리로 따지면 700m나 될까?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바람의 언덕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뒀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주니,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다. 호수처럼 여유로운 신선대 풍경은 바람의 언덕에 적잖이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짧은 경사로를 따라 신선대에 오르면, 다포도, 대병대도, 매물도 등 남해의 보석 같은 섬들이 반짝이는 물 비늘 뒤로 아련히 비친다. 거제 8경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신선대의 명성은 거제 얻어진 게 아니다. 신선대에서 해금강 선착장 방향으로 500m쯤 가면 신선대 전망대가 있다. 완만하나마 경사



신선대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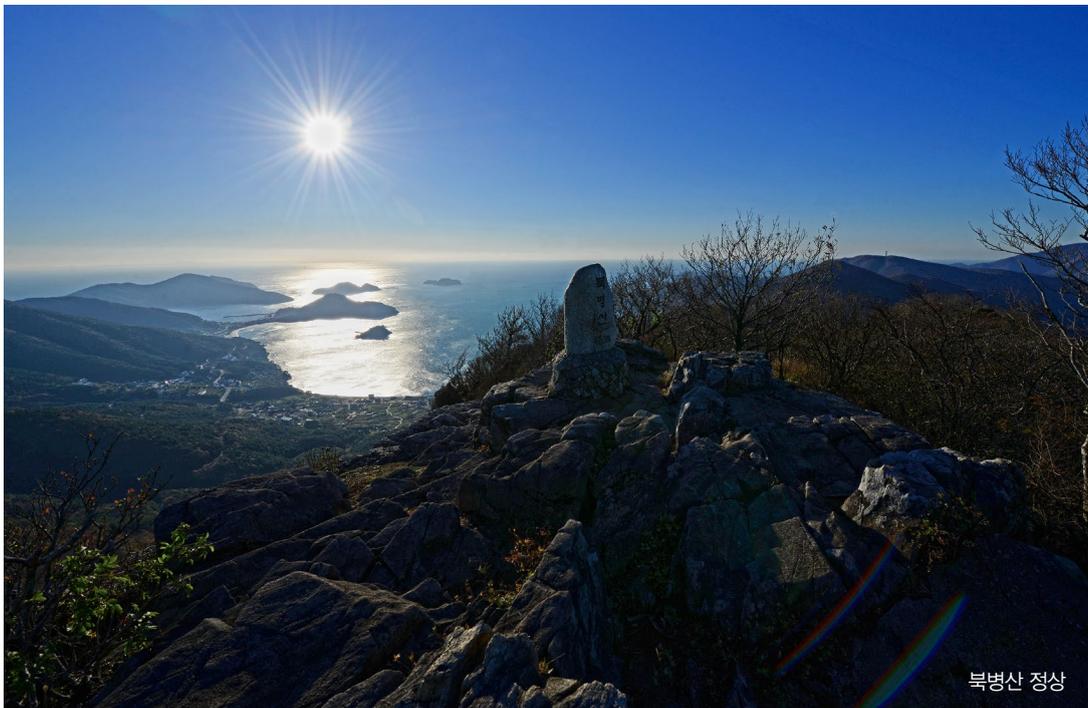
신선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거제 앞바다

로를 걸어 내려가야 하는 신선대와 달리 전망대는 도로변에 위치해 누구나 편하게 신선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한려수도를 품은 황제의 산, 북병산

북병산(465.4m)은 거제의 남동쪽 해안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해안 풍경이 장관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북병산 일대는 황제의 길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전쟁 파병으로 인연을 맺은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 셀라시에가 1968년 이곳을 지나며 감탄을 연발해 생긴 애칭이다. 황제의 길은 북병산 등산로가 있는 망치고개에서 학동몽돌해변을 지나 거제해금강에 이르는 해안길을 가리킨다.

심원사를 들머리로 하는 북병산 등산은 크게 두 코스로 나뉜다. 심원사에서 정상을 거쳐





황금빛으로 물든 바다



북병산은 거제 10대 명산 가운데 하나다

망치정수장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1코스, 심원사에서 대피소를 거쳐 동구 구천리 망골로 이어지는 구간이 2코스다. 2코스는 '북병산 웰빙테마탐방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북병산의 산허리를 따라가는 2코스는 북병산의 둘레길인 셈이다.

북병산 정상은 거대한 바위로 이뤄졌다. 철제계단을 타고 올라야 할 정도로 가파르다. 정상까지 오면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조각 풍경이 못내 아쉬웠는데, 정상에 서면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 시원스런 바다 풍경이 성큼 다가선다. 해발 500m가 채 안 되는 산정에서 마주한 풍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관하다. 북병산은 거제에서 손꼽히는 일출 명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조금 서둘러 산정에 선다면 수평선 위로 솟는 은빛 태양이 푸른 바다를 황금



빛으로 물들이는 장관을 만날 수 있다. 북병산 정상에서는 구조라해수욕장을 포함한 거제도 동부 해안일대가 한눈에 담긴다.

푸른 거제 바다가 선물하는 풍성한 먹거리

35년 전통을 자랑하는 '백만석'은 명게비빔밥 전문점이다. 거제에서 생산된 명게를 4~6월 경 구입해 잘게 다져 양념한 뒤 저온 숙성시켜 보관한다. 네모 모양으로 얼린 명게는 김가루와 깨소금 위에 참기름 조금 뿌린 뒤 공기밥을 비벼 먹는다. 처음에는 명게 특유의 맛이 돌지만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하다. 명게비빔밥과 함께 나오는 대구 맑은탕도 일품이다.

거제 옥포조선소 인근에 위치한 '싱싱게장'은 거제도 주민사이에서 유명한 식당이다. 게장 정식 단일 품목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맛집. 게장 정식에는 양념게장, 간장게장, 갈치찌개, 꽃게된장찌개 등 풍성한 밑반찬이 함께 나온다. 게장은 무한리필 해준다. 최근에는 활전복장과

새우장을 추가 메뉴로 내고 있다.

중화요리 전문식당인 '천화원'은 3대 60년을 이어온 노포다. 거제도에 갔다가 천화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화원에 가기 위해 거제도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제를 대표하는 맛집. 생 돼지고기로 튀긴 탕수육, 각종 해산물이 들어간 유산슬 등 다양한 메뉴를 내지만 중화요리의 기본은 역시 자장면. 쫄깃한 면발과 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자장면은 어릴 적 먹던 그 맛 그대로다. '수요미식회'에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바다 좋은 거제에 와서 싱싱한 활어회 한 점 맛보지 않을 수 없다. '평화횃집'은 같은 장소에서 2대째 5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활어회 전문 식당이다. 남해 청정해역에서 잡은 자연산 활어만을 고집할 뿐 아니라 고추장도 직접 담근 것만 사용한다. 두툼하게 썰어낸 광어와 고들고들 씹히는 맛이 일품인 우럭 회는 평화횃집의 대표 메뉴. 새콤달콤 육수 맛이 일품인 도다리 물회와 겨울철 별미 생대구탕도 이 집의 자랑이다.



천화원



평화횃집



백만석멍게비빔밥



상상게장